

일제 하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과 그 성격*

손 준 식**

목차

머리말

I. 청대 대만의 중국 전통 지방의식

II. 일제의 식민지 착취와 민족차별정책

III. 일제의 근대화와 동화정책

IV. 일제 하 ‘대만의식’의 성격

맺음말

머리말

대만은 비록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多族群¹⁾ 多言語 사회의 특성상 구성원간의 이질성이 크고, 계속된 외래정권의 지배로 자신들이 한 번도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슬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411-JO2001)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ethnic group 또는 ethnicity의 번역어로 族群이란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명기, 『청말 대만의 番地개발과 족군정치의 終焉』, 『중국근현대사연구』30(2006.6), 60쪽을 참조.

픈 역사'의식,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오늘날 대만사회의 최대 이슈인 소위 '統獨논쟁' 즉 중국과의 통일이나 아니면 독립이나를 둘러싼 분열과 대립 역시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대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혼란의 정서적 배경이 되고 있는 '대만의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의식'이란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 시공간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 내지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대만이란 무엇인가?" 등의 정체성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²⁾ '대만의식'의 함의는 시대와 계층,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고 그 형성시기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근대적 의미의 민족과 국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청조 지배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의 차별적인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일본통치자에 대항하는 과정 중에 서서히 형성되어, 戰後 중국국민당 정부의 탄압과 장기 독재를 거치면서 확대 심화되었고, 특히 민주화 과정을 거쳐 최근 대만독립을 표방한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더욱 복잡한 요소를 내포하게 되었다고 본다.³⁾ 따라서 일제 하 '대만의식'의 형성배경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대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만의식'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의 실상과 그 시대를 살았던 대만인의 삶을 엿봄으로서 우리 역사와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청대 대만에서 '대만의식'이 형성되지 못했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일제 하 '대만의식'의 생성 배경을

2) 黃俊傑, 『臺灣意識與臺灣文化』(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 3쪽.

3) 王曉波, 『臺灣意識的歷史考察』(臺北, 海峽學術出版社, 2001), 3-16쪽.

일본의 식민지 착취와 민족차별정책에 대한 불만 및 근대화와 동화정책에 의한 자각과 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일제 하 ‘대만의식’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착취와 차별을 전제로 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와 ‘동화’정책의 실상과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문화융합의 바른 해법을 우리에게 시사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청대 대만의 중국 전통 지방의식

청조 통치기간(1683-1895년) 동안 대만에서는 “三年一小反, 五年一大亂”이란 말처럼 민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들 중에는 ‘反淸復明’의 구호를 내건 것도 있었지만 이는 단지 군중을 규합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구호 내지 일종의 중국 전통 지방의식의 표현방식에 지나지 않았다.⁴⁾ 왜냐하면 당시 대만사회는 아직 ‘대만’이라는 지역 정체성(territorial identity)에 기반 한 ‘대만의식’이 형성될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대만’이란 단어가 오랫동안 하나의 지리명사로 사용되었을 뿐 대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 종족 혹은 혈연에 의거해 각각 命名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청조 관원들은 대부분 대만의 漢人을 ‘臺人’ 혹은 ‘臺民’으로, 원주민을 ‘生番’과 ‘熟番’으로 나누어 불렀고, 한인 스스로는 자신의 原籍에 따라 漳人, 泉人, 粵人 혹은 ‘대민’으로 칭하기도 하였다.⁵⁾

청조의 점령 이래 약 200년 동안 대만은 줄곧 福建省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1885년 建省 이후에도 臺南, 臺灣, 臺北府로 나뉘고 대만부

4) 翁仕杰, 『清代臺灣漢人民變的理念分析』, 『臺灣風物』40卷1期(1990.3), 1-24쪽.

5) 陳翠蓮, 『臺灣人的抵抗與認同, 1920-1950』(臺北, 遠流出版公司, 2008), 64쪽.

아래에 다시 臺灣縣이 설치되었으니, 청조 통치 하에서 ‘대만인’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대만부 대만현(현 臺中縣 부근 일대) 주민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청조가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대만의 자연지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만은 중앙산맥이 섬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을 관통하고 있고 대부분의 하천이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자연히 남북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만은 우기가 길고 강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주요 하천의 폭이 넓어 건너기가 쉽지 않아서 매번 우기 동안에는 서로 왕래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들 주요 하천은 서부 평원을 거의 왕래하지 않는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였고 매 구역마다 서로 다른 인문사회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각 구역 내의 경제활동도 주요 市鎮을 중심으로 한 소위 ‘市鎮經濟(Township economy)’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리환경의 제약으로 대만의 한인들은 청조 통치기간 동안 대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정체성을 응집할 수가 없었다.⁶⁾

반면 청조 통치 하에 대만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비록 중국 대륙인과 상대되는 대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만의식’을 갖지 못하였지만, 대륙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는 지방의식은 매우 강렬하였다. 이러한 지방의식 형성의 주된 원인은 복건과 광둥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언어와 출신 지역에 따라 각각의 생명공동체를 조직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집단 거주한데 있었다. 이에 초기 대만 한인사회는 대륙에 비해 혈연적 관계보다 지연적 색채가 매우 농후하였다.

한인의 대만 이주는 아주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적 대규모의 이민이 건너온 것은 1630년 네덜란드 인이 대만의

6) 簡炯仁, 『臺灣開發與族群』(臺北, 前衛出版社, 1995), 134-135쪽.

농업 개발을 위해 한인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면서 부터였다. 연구에 따르면 1650년 이후 대만 전역의 한인 이민자는 약 2만5천에서 3만 호에 총 인구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고기 잡이, 무역, 농사, 수렵에 종사하였다고 한다.⁷⁾ 그 후 대만이 청의 관도에 막 편입되었을 때 한인 이민은 대부분 복건의 漳州府와 泉州府에서 건너왔고 客家人은 거의 없었지만, 건륭 말년 “대만 전체 인구 중 장주와 천주 출신이 60-70%, 객가인이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 출신 지역별로 나뉘어 거주하였으니, 천주인은 주로 서부 연해평원과 대북 분지에, 장주인은 서부 내륙평원과 북부 구릉지대 및 蘭陽평원 일대에, 객가인은 서부의 남측과 북측의 구릉과 臺地 혹은 산지 근처의 평원지대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⁸⁾ 왜 이러한 분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천주인이 먼저 와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고, 장주인은 그 다음에 왔기 때문에 내륙 쪽으로 들어가 살았으며, 가장 늦게 도착한 객가인에게는 산지에 가까운 구릉지만 남았다는 견해가 오랫동안 유행했으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들이 각기 다른 지역을 선택해 거주하게 된 까닭은 그들의 본 고향에서의 생활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⁹⁾ 한편 초기 한인 이민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아 취락을 형성하고

7) 郭水潭, 『荷人據臺時期的中國移民』, 『臺灣文獻』10卷4期(1959.10), 20-21쪽.

8) 주완요저, 손준식의역,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신구문화사, 2003), 79쪽.

9) 예컨대 명말청초 천주인들 사이에는 공상업에 종사하는 풍조가 크게 성행하여 주로 행상이나 해상무역, 수공업, 어로, 양식, 염전 등 바다에 의존하여 살았기 때문에 대만에 건너와서도 자연스럽게 해안가를 거주지로 선택하게 되었고, 장주인에게 농업은 줄곧 경제의 기초였고 생활의 중심이었기에 대만 내륙의 평원지대를 선택하였으며, 객가인은 원래 산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산지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대만에 도착했을 때 평원 외에 자기 고향과 비슷한 지리환경인 산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하나 더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施添福, 『清代在臺漢人的祖籍分布與原鄉生活方式』,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地理學系, 1987.

집단 거주하였다. 1903년 대만총독부가 시행한 호구조사 결과, 장주어 사용자가 120만 명, 천주어 사용자가 110만 명, 객가어 사용자가 50만 명, 기타 漢語 사용자가 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¹⁰⁾ 이들 언어가 서로 다른 족군의 거주지는 그들이 사는 지명에도 반영되고 있었다.¹¹⁾ 아무튼 초기 이민의 이러한 출신지별 사용 언어별 집단거주형태는 각자 자신의 原籍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는 지방의식 발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지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지방의식은 부락간의 집단 패싸움[分類械鬪]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다. 기록에 의하면 1722년부터 1860년까지 대만에서 발생한 비교적 큰 규모의 계투 26건 중 대륙에서의 동향관계를 위주로 한 것이 21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²⁾ 다른 한편 이러한 지방의식은 원적별 신봉하는 主神의 차이¹³⁾와 신봉 세력의 흥쇠에 따른 祭祀圈의 변화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졌다.¹⁴⁾ 그러나 중국 대륙 전통사회

-
- 10) 사용 언어별 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족군 정체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陳漢光, 『日據時期臺灣漢族祖籍調查』, 『臺灣文獻』23卷1期(1972.3), 85쪽.
 - 11) 陳國章, 『從地名可以辨別泉·漳語群的分布 -以臺灣地名爲例』, 『地理教育』24期(國立臺灣師範大學, 1998), 1-4쪽.
 - 12) 김영신, 『대만의 역사』(지영사, 2000), 122쪽. 지연취락 사이의 계투 발생에는 지방의식에 기초한 자위와 보복 및 경제적 이권 갈등 외에 청조의 대만 통치정책에도 원인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林偉盛, 『清代臺灣分類械鬪發生的原因』, 『臺灣史論文精選』上(臺北, 玉山社, 1996), 263-283쪽을 참조.
 - 13) 대체적으로 말해 장주인은 開漳聖王을, 천주 同安人은 保生大帝를, 천주 南安人은 廣澤尊王을, 천주 安溪人은 清水祖師를, 객가인은 三山國王을 주신으로 奉祀하였다. 李國祚, 『清代臺灣社會的轉型』, 『中華學報』5卷2期(1978.7), 135쪽.
 - 14) 이에 관해서는 尹章義, 『閩粵移民的諧和與對立 -以客屬潮州人開發臺北以及新莊三山國王廟的興衰史爲中心所作的研究』, 『臺北文獻』74期(1985.12), 1-27쪽 및 洪麗完, 『清代臺中地方福客關係初探 -兼以清水平原三山國王廟之興衰爲例』, 『臺灣文獻』41卷2期(1990.6), 63-93쪽을 참조.

의 이식 내지 연장이었던 초기 이민사회는 점차 토착화되어 1860년대에 이르면 원적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는 지방의식은 점점 없어지고, 대만 현지의 神明 신앙과 신흥 宗族조직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특히 원적관념의 영향을 받은 ‘唐山祖’ 종족에서 대만에 처음 건너 온 조상에 뿌리를 둔 ‘開臺祖’ 종족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분류계투사건이 1860년대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¹⁵⁾ 이는 ‘대만’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집단이 대만의 한인사회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만’에는 전혀 대만의 산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만인’ 역시 산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원주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청조의 ‘理番’정책은 원주민의 귀순 여부에 따라 ‘숙번’과 ‘생번’정책으로 나뉘었는데, 平埔族으로도 불리는 ‘숙번’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동화정책을 채택하여 그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매년 일정하게 인두세의 일종인 社餉을 납부 받았다. 반면 高山族으로도 불리는 ‘생번’에 대해서는 소위 ‘封山令’을 실시하여 한인과 철저히 격리시켰다. 즉 ‘番界’를 설치하여 한인의 진입을 금하고 위반자를 엄벌하는 한편 ‘생번’들도 마음대로 ‘번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생번’ 거주 지역을 ‘교화가 미치지 않는 땅[化外之地]’으로 내버려둠으로써 이후 일본의 대만출병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1874년 ‘대만사건’ 이후 청조가 소극적인 ‘이번’정책을 소위 ‘開山撫番’의 적극정책으로 바꾸었으나 그 성과를 거두기 전에 일본에 할양되고 만다.¹⁶⁾ 따라서 대만 한인사회의 이러한 집단이식이 대만 전역을 지

15) 대만사회의 토착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陳其南, 『臺灣的傳統中國社會』, 臺北, 允晨文化實業公司, 1987를 참조.

16) 줄고, 「청대 타이완의 개발과 청조의 정책」,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

역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대만의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기다려야 했다.

II. 일제의 식민지 착취와 민족차별정책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조가 일방적으로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분노한 대만 官民은 5월 독립을 선포하고 臺灣民主國을 성립시켰다.¹⁷⁾ 하지만 대만민주국은 ‘永淸’이라는 연호 및 ‘독립건국’을 표명한 電文과 唐景崧의 총통 취임선언에 보이듯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니라 독립을 명분으로 외국의 간섭을 끌어 들여 일본의 점령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고, 한편으로 청조가 대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대만인에게 줌으로써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항일을 고취하려는 일부 청조 관원의 의도도 있었다.¹⁸⁾ 그러므로 일본군이 상륙하자 당경승은 몰래 대륙으로 도주하였고, 10월 劉永福이 臺南에서 철수함으로써 대만민주국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에도 대만 각지에서 의병들의 항일유격전이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 항일무장투쟁이 사실상 종료된 1902년까지 전후 8년간 희생된 대만인이 3만2천 명에 달했다.¹⁹⁾ 다만 이들 항일운동은 여전히 청조를 국가정체성의 대상으

(해안, 2002), 167-168, 175-178쪽.

17)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吳密察, 『一八九五年‘臺灣民主國’의成立經過』, 吳密察著, 『臺灣近代史研究』(臺北, 稻鄉出版社, 1994), 1-50쪽을 참조.

18) 李筱峰, 『一百年來臺灣的政治運動中的國家認同』, 張炎憲外編, 『臺灣近百年史論文集』(臺北, 吳三連臺灣史料基金, 1996), 276-277쪽.

19) 이에 관한 내용은 졸고,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시아문화』18(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11-12쪽을 참조.

로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天朝體制’의 문화민족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후 1907년부터 1915년까지 발생한 일련의 무장항일사건 중 자립정권을 선언한 것이나 대만을 중국관도로 수복 하자는 것을 막론하고 대부분 구시대 왕조교체의 성격을 띤 전근대적인 운동으로 근대국가 개념을 가진 것은 거의 없었다.²⁰⁾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통치 초기 대만사회에서는 ‘대만민족’ 개념은 물론이고 지역 정체성으로서의 ‘대만의식’도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항토에 대한 애착과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조국에 대한 원한 및 대만총독부의 兩岸 교류억제 정책²¹⁾으로 대만인은 점차 중국과 멀어지게 되었고 여기에 일본의 식민지 착취와 민족차별정책이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대만의식’이 축성되게 되었다.

1. 식민지 착취

대만 점령 직후 일본정부는 반항세력을 진압하여 치안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토지제도·화폐제도·도량형 등을 개혁하고, 교통건설과 인구조사 등을 통해 자본주의화의 기초를 완성하여 일본자본과 기업이 진출할 여건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밖에 총독부는 외국자본을 대만에서 축출하고 대만본토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방법²²⁾으로 일본자본과 기업이 대만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20) 李筱峰, 앞의 글, 277-280쪽. 이 시기에 일어난 13차례의 무장항일사건 가운데 동맹회 회원이었던 羅福星이 기도한 것만이 유일하게 공화체제를 주장하고 ‘중화민국’의 명의를 표방하고 있다.

21) 예컨대 대만에 온 중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1896년 반포한 「清國勞働者取締規則」(1906년 「支那勞働者取締規則」으로 개정됨)와 대만인의 중국 방문을 규제하기 위해 1897년 반포한 「外國行旅券取締規則」(1900년 「外國旅行券規則」으로 개정됨) 등이 있다. 許雪姬 外, 『臺灣歷史辭典』(臺北, 文建會, 2004), 184쪽; 梁華璜, 「日據時代臺民赴華之旅券制度」, 『臺灣總督府的‘對岸’政策研究』(臺北, 稻鄉出版社, 2001), 132-137쪽.

록 배려하였다. 특히 1898년부터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총독부는 은닉 토지 색출과 토지소유현황 파악을 통한 세수증대로 재정독립을 이루었음²³⁾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하여 토지매매 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일본자본의 대만 투자 및 기업설립을 유도하였다. 한편 식민지 경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주의 토지사유를 허용하고 법률로 그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지주계급을 식민지체제 내에 편입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²⁴⁾ 또한 일본정부는 점령 초부터 ‘농업대만, 공업일본’의 기본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대만을 열대경제작물과 식량생산지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1900년 전후 총독부는 각종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연구기구 설립, 농업조직 창립, 수리사업 등 농업발전을 촉진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위주의 식민경제체제를 건립하였다.²⁵⁾

일본의 대만에 대한 식민지 착취는 재정독립의 조기 실현과 대만인의 조세부담이 일본인보다 무거웠다는 점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일본 내지 주민의 1인당 각종 조세 총액이 연간 3円 34錢 3厘였는데 반해 대만 주민은 일본 내지에 비해 1엔 11전 1리를 더 부담해야 했다. 이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주민보다 2엔 37전 4리가 더 많은 액수였다. 하물며 대만인은 총독부의 재정지출에 대해 전혀 간섭

22) 예컨대 대만총독부는 1908년 율령 제11호로 『臺灣民事令』을 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1911년 총독부령 제16호를 공포, 대만 자본이 會社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따라서 대만인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일본인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니, 총독부의 의도는 대만인의 자본을 끌어내되 그 경영권은 일본인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3) 조사 전 36만 1천 甲이던 경지면적이 조사 후 61만 9천 갑으로 증가하였고, 1898년 78만 여엔에 불과하던 토지세 징수액이 1905년에는 297만 여엔으로 급증하게 된다. 江丙坤, 『臺灣田賦改革事業之研究』(臺北, 臺灣銀行經濟研究室, 1972), 142-145쪽.

24) 戴國輝著, 魏廷朝譯, 『臺灣總體相』(臺北, 遠流出版公司, 1992), 78쪽.

25) 黃秀政外著, 『臺灣史』(臺北, 五南圖書出版, 2002), 191-205쪽.

할 권리가 없었다. 통치 초기 총독부는 民政費의 약 절반을 대만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경찰 경비에 사용하였고, 그 후 비록 세수의 일부를 대만의 각종 건설에 투자하였지만 그 대부분 일본의 독점자본(특히 제당업)의 원료공급과 상품판매에 유리한 방면에 집중되었으니, 이는 일제시대 대만 산업의 고도의 식민지성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⁶⁾

식민지 대만의 자본주의 발전은 국가권력의 고도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농민계층의 이익과 권리는 매우 심하게 침해받았다. 국가가 산업자본을 보호하는 것은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히 있는 문제이지만 식민지에서는 통치자와 자본가가 왕왕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착취가 바로 통치민족의 피식민자에 대한 경제적 핍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먼저 대만의 산업자본 비중을 보면 1926년 33개 업종의 실제 투자총액 319,832천엔 중 일본자본은 288,936천엔(90.34%)이고 대만자본은 30,896천엔(9.66%)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자본의 절반 이상인 150,607천엔이 제당업에 집중되고 있는데,²⁷⁾ 이는 총독부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1900년 최초의 신식 제당공장인 대만제당주식회사가 설립된 이래 일본자본의 제당업 진출은 지속되어 1911년 21곳에 지나지 않았던 신식 제당공장이 1927년 45곳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전체 설탕 생산량의 98%를 점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만(三井 계열)·明治(三菱 계열)·鹽水港·大日本(藤山 계열)·東港·新高 등 일본계 6대 공장의 생산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한 것은 일본 대자본의 대만 제당업 독점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²⁸⁾ 다음 산업노동자의 민족별 비율을 보

26) 許介麟, 『日本殖民統治讚美論總批判』(臺北, 文英堂, 2006), 29-30쪽.

27) 矢內原忠雄著, 周憲文譯, 『日本帝國主義下之臺灣』(臺北, 帕米爾書店, 1987), 85-87쪽.

28) 黃秀政外, 앞의 책, 200-201쪽.

면 1921년 대만인이 91.9%(일본인과 외국인이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 즉 노동조건이 열악한 직종일수록 대만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일본 자본의 노동학대와 착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노동자의 연령분포로, 대만인은 12세 미만의 경우 99.2%, 12세에서 15세 미만의 경우 97.4%, 15세에서 20세 미만의 경우 94.2%인 반면 20세 이상의 경우 92%를 차지해 민족별 비율과 비슷해지고 있다.²⁹⁾

한편 총독부는 1895년 「官有林野取締規則」을 제정·공포하여 그 제1조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권리증이나 기타 확실한 증거가 없는 모든 임야는 관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문제는 청조 시기 대만의 산림에 대해 한 번도 측량을 통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야의 業主權을 명확히 규정한 권리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청대 대만의 임야 업주권은 田園 혹은 가옥의 부속물로 간주되거나, 임산물 채취와 같은 사실상의 점거이용 상태에 따라 관습적으로 업주권이 인정되었다. 간혹 산림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구두계약이 행해졌고 문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일제시대 직전에야 나타났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1910년부터 5년간 ‘番地’를 제외한 보통 행정구역의 임야조사를 강행하여 소유권 등기가 없는 임야를 모두 관유림으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관유림이 751,996甲에 달한데 반해 사유림은 31,202갑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독부는 관유림을 직접 경영하거나 혹은 일본 자본가에게 불하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관유림으로 편입된 대부분의 임야가 오래 전부터 대만 농민들이 개발·경영해오던 것으로 하루아침에 업주권을 빼앗긴 농민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

29) 山川均著, 蕉農譯, 『日本帝國主義鐵蹄下的臺灣』, 王曉波編, 『臺灣的殖民地傷痕』(臺北, 帕米爾書店, 1985), 61-63쪽.

로 비화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12년 발생한 林坵埔사건³⁰⁾이었다. 임야조사 후 1915년부터 10년에 걸쳐 정리 작업을 진행한 총독부는 1926년 관유림을 보존 임야와 불보존 임야로 구분하여 후자 중 약 27만 갑을 민간에 매도함으로써 일본자본의 투자를 끌어내었다.³¹⁾

다른 한편 총독부는 1905년 「糖場取締規則」을 공포하여 ①당국의 허가 없이 지정구역 내에서 재래식 내지 신식 제당공장을 설립할 수 없고(제당업 독점), ②구역 내에서 생산된 사탕수수는 반드시 지정된 제당공장에 판매해야 하며(원료 독점), ③제당회사는 매년 수확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역 내에서 수확된 모든 사탕수수를 구매해야 한다(의무 구매)고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일본 대자본이 투자한 제당회사가 사탕수수의 구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재배농가를 착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특히 제당회사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의 경우 별도의 불합리한 계약을 통해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³²⁾ 그 밖에 식민당국은 일본 자본가가 원하는 토지를 대만 농민이 팔지 않을 경우 '調停'이란 명의로 경찰의 폭력을 이용해 매매를 강제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1920년대 이후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³³⁾ 이와 같이 제당회사가 각종 방식을 통해 취득한 사탕수수 재배 면적은 매년 늘어나 1922년 이미 대만 전체 경지면적

30) 이 일대의 대나무 숲은 대중과 대남주에 걸친 광범위한 것으로 오랫동안 부근 5천여 호의 주민들이 대나무와 죽순을 채취하여 생활하였는데, 그 업주권이 명확하지 않아 1908년 총독부는 이곳을 관영 모범죽림으로 획정하고 2년 뒤 三菱製紙에 경영을 위탁하였다. 이에 생활의 터전을 빼앗겨 생계가 곤란해진 농민들은 1912년 3월 임이프에서 약 10리 가량 떨어진 頂林과출소를 습격하여 경찰 3명을 살해하였다.

31) 김영신, 앞의 책, 209-210쪽; 許介麟, 앞의 책, 32쪽.

32) 葉榮鐘, 『日據下臺灣政治社會運動史』(臺北, 晨星出版, 2000), 571쪽; 矢内原忠雄, 앞의 책, 240-241쪽; 김영신, 앞의 책, 220-221쪽.

33) 許介麟, 앞의 책, 32쪽.

의 11.6%에 달하였다.³⁴⁾

2. 민족차별정책

대만 할양이 결정된 직후 일본정부는 식민통치를 위해 총독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해군대장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를 초대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그에게 본국의 지시 없이 현지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후 일본제국의회는 대만의 치안이 불안하고 일본과 왕래가 불편하며 풍토와 민심이 일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1896년 「법률 제63호(약칭 六三法)」를 반포하여 대만총독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 즉 ‘律令’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입법제도를 도입하였다.³⁵⁾ 이에 무관총독이 대만의 행정·입법·사법 및 군사대권을 장악한 식민통치체제가 성립되었다. 애초 「육삼법」은 유효기간이 3년이었지만 계속 기간을 연장하여 1906년 「법률 제31호(약칭 三一法)」가 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삼일법」도 여전히 일본본국의 법률과 칙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만총독의 울령제정권과 긴급명령권을 허용함으로써 1921년 「법률 제3호」가 제정될 때까지 대만은 일본 헌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정치적 異域으로, 대만인의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대만총독에 의해 좌우되었다.³⁶⁾

제1차 세계대전 말 이래 거세게 일기 시작한 민족자결주의 등 사

34) 山川均, 앞의 글, 50-51쪽.

35) 黃昭堂著, 黃英哲譯, 『臺灣總督府』(臺北, 前衛出版社, 1994), 46-47, 217-220쪽.

36) 黃秀政外, 앞의 책, 181쪽. 「법률 제3호」가 비록 일본의 법률이 원칙상 대만에 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만총독이 특수한 경우에만 울령제정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도 총독전제의 식민통치는 근본적으로 종식되지 않았고 일본헌법의 전면적 적용과 형법의 일원화는 시종 실현되지 못하였다. 黃昭堂, 앞의 책, 152-154쪽.

조의 충격 하에 일본에서는 평소 식민지 통치의 기본방침으로 점진적인 ‘内地延長主義’를 주장했던 하라 다카시(原敬)내각이 탄생하였다. 이에 1919년 초대 문관총독으로 임명된 텐 켄지로(田健治郎)는 ‘日臺融合’을 표방하면서 1920년 州와 市, 街·庄마다 協議會를 설치하여 대만인을 포함한 민간 인사를 선임하고 1921년 總督府評議會를 재조직함으로써 더 많은 소위 “학식과 자산 및 명망이 있는” 대만 인사를 식민통치체제 하에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총독부평의회와 각급 협의회 회원은 모두 관선³⁷⁾이었고 그 인적구성에 있어서 일본인이 절대 다수를 점하였을³⁸⁾ 뿐 아니라 의결권도 없는 명목상의 민의 대표기관에 불과하였다. 예컨대 총독부평의회는 회장인 총독과 부회장인 총무장관 외에 총독부 고급관료 7명과 총독이 임명한 대만인 9명, 대만 거주 일본인 9명을 합하여 25인 이내의 회원을 두도록 하였고, 그 임기는 2년이었으나 임기 중에도 총독이 해임할 수 있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평의회는 총독의 단순한 행정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고 자문사항도 일반정무에 국한되어 율령제정이나 재정수입 등 일반의 이해와 밀접한 사무는 제외되었다. 더구나 평의회의 의견을 최종 채택하는 결정권이 총독에게 있었고 일반 평의회원은 총독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³⁹⁾

이러한 총독전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총독부는 방대하고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형적인 경찰정치’를 시행하였다. 대만경찰은 점령 초 무장항일운동 진압을 통한 치안유지와 1920년대 이후 민족운동

37) 주협의회 회원은 대만총독이, 시협의회 회원은 주지사가, 가·장협의회 회원은 주지사 혹은 청장이 임명하였는데, 모두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였다.

38) 예컨대 1924년 주·시·가협의회 총 회원 286명 중 일본인이 184명(64.3%)으로 대만인 102명(35.7%)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山川均, 앞의 글, 69쪽.

39) 黃昭堂, 앞의 책, 154-155쪽; 黃秀政外, 앞의 책, 183-185쪽.

탄압을 통한 식민체제 강화 외에 각종 경제정책 시행을 관리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의 모든 일반 행정사무를 보조 집행하는 경찰만능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⁴⁰⁾ 이들 대만경찰은 식민통치의 기층 행정일선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폭력을 앞세워 대만인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며 오만한 태도로 민족적 차별을 가함으로써 대만인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식민당국은 이러한 경찰의 소질 제고와 권한 축소를 통해 그 직권남용을 방지하여 민중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의 非違를 감독할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대만 언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⁴¹⁾ 대만인의 불만은 누적되어갔다.

대만인에 대한 민족차별대우는 관리임용과 승진 및 임금에서도 드러났다. 먼저 관리임용을 살펴보면 1924년 쏘 대만의 街長은 일본인 14명, 대만인 20명이고 莊長은 일본인 14명, 대만인 220명으로 장장의 경우 대만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인구비례를 따지면 일본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중요한 가장의 경우 일본인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 대만인 관리 중 전매국 번역관 1명, 의학전문학교 교수 1명, 고등전문학교 교수 1명 및 퇴직한 外書課 번역관 1명을 제외하고는 고등관이 한명도 없었다. 소위 ‘지방자치’ 실시 후 곧이어 총독부가 「대만총독부이사관특별임용령」을 공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정세에 밝은 대만인이 지방의 이사관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나 임명된 대만인은 거의 없었다.⁴²⁾ 그 외 일본

40) 이에 관해서는 李理, 『日據臺灣時期警察制度研究』, 臺北, 海峽學術出版社, 2007을 참조.

41) 「警察制度改革의 必要」, 『臺灣民報』, 제172호(1927.9.4); 「警察根性的故態復萌」, 『臺灣民報』, 제208호(1928.5.20); 「警察의 暴行」, 『臺灣新民報』, 제354호(1931.3.7); 「警察勿激民心惡化」, 『臺灣新民報』, 363호(1931.5.9); 「警察職權濫用」, 『臺灣新民報』, 제390호(1931.11.14).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대만인 중 관료로 임용되지 못하고 변호사나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고, 관료로 임용된 자도 일본인에 비해 승진이 늦었다.⁴³⁾ 이러한 차별은 식민지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31년 경찰 현역인원 중 警部 이상은 모두 일본인이고 警部補 239명 중 2명, 순사부장 781명 중 6명만이 대만인이었다. 갑종순사는 3939명 중 대만인이 159명(원주민 7명)에 불과했고 을종순사는 1953명 중 대만인이 1158명(원주민 101명), 警手는 2920명 중 대만인이 2086명(원주민 1013명)으로,⁴⁴⁾ 하위직으로 갈수록 대만인의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지배가 끝날 때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외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본인과 대만인 사이에 보수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일본인 관리는 급여 외 급여의 60%에 달하는 외지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우체국 직원의 봉급도 일본인이 대만인에 비해 평균 약 2배 가까이 높았으며, 노동자의 노임도 일본인이 평균 2.28배 많았다. 소학교와 공학교 교사의 봉급도 평균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⁴⁵⁾

한편 총독부는 격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제 초기부터 대만 거주 한인과 원주민 및 일본인 세 계통으로 나누어진 차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총독부는 교육을 대만인의 '동화'와 '개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지만 1919년까지 확실한 학제 도입을 미루었다. 다만 현실적 필요에 따라 1898년 6년제 公學校를 설립하여 전통적인 書房의 교육기능을 점차 대신토록 하였다.⁴⁶⁾ 당시 중등 이상 교육시설은 극히 미비하

42) 山川均, 앞의 글, 69-70쪽; 黃秀政外, 앞의 책, 179쪽.

43) 黃昭堂, 앞의 책, 159-160쪽.

44) 臺灣總督府警務局編, 『昭和六年 臺灣の警察』, 42쪽.

45) 1921년 소학교 교사 1인당 평균 봉급이 1099엔인데 반해 공학교 교사는 604엔이었고, 1922년에는 1062엔 대 633엔이었다. 山川均, 앞의 글, 63-66, 75쪽

46) 단 서방에 대해서도 일어와 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할 뿐 강제적

여 공학교 교사와 사무인원을 양성하기 위한 ‘國語’(일어)학교, 5년제의 醫學校, 농사시험장 및 공업·임업·糖業강습소 이외에 1915년 대만인들의 청원과 출연에 의해 설립된 4년제 臺中중학교 뿐이었다. 결국 대만인 자제의 교육은 총독부가 대만을 통치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일어와 기초기술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주민 교육을 위해 설립된 4년제의 番人公學校 혹은 教育所의 교과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은 일반 공학교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인 자제를 위해서는 일본 국내와 똑같은 소학교·중학교 및 공업·상업학교 등을 설립하였다.⁴⁷⁾

제1차 세계대전 후 총독부는 ‘동화주의’ 시정방침을 내세우면서 1919년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만교육령』을 반포하여 대만의 학제를 확립하였다. 이 법령에 의거하여 총독부가 당시 350만 대만인을 위해 제공한 교육기관은 학령아동의 1/4을 수용하는 공학교 외에 4년제 고등보통학교 1개, 3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 2개, 5년제 사범학교 2개, 3년제 공업·상업 및 농림학교 각 1개, 6년제 농림 및 상업전문학교 각 1개, 8년제 의학전문학교 1개에 불과하였다. 반면 당시 20만이 채 안 되는 대만 거주 일본인을 위해 5년제 중학교 2개, 4년제 고등여학교 3개, 5년제 공업 및 상업학교 각 1개, 3년제 고등상업학교 1개가 있었고 그 외 사범학교와 의학전문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학제는 여전히 대만인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⁴⁸⁾

인 폐쇄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공학교에도 한문과목을 개설하여 서방의 교사나 유생들을 교사로 초빙하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줄고, 『동화와 개화의 상흔-식민지 타이완의 일어』, 『식민주의와 언어』(아름나무, 2007), 18-19쪽.

47) 黃秀政外, 앞의 책, 209쪽.

48) 또 다른 예를 들면 1919년 이래 대만아동의 취학률이 급증하여 모집정원을 40% 이상 초과하였는데, 대북시의 경우 인구 5만 명인 일본인을 위해 5개의 소학교가 있었는데 반해 인구 12만 명인 대만인이 다니는 공학교는 단지 5개밖에 없었다. 山川均, 앞의 글, 74쪽.

평등한 교육권을 부여하지 않았기에 대만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총독부는 1922년 새로운 「대만교육령」을 반포하여 기존의 차별(격리)정책을 취소하고 일본국내의 제도를 모방,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대만인과 일본인의 공학제를 실시하였다.⁴⁹⁾ 이에 따라 대북제국대학(1928년)⁵⁰⁾을 비롯한 각 급 학교가 설립되어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만인 자제라도 '국어상용자'의 경우 소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만인의 교육기회가 확충되는 듯 했다.⁵¹⁾ 그러나 사실상 차별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고 공학제는 급속하게 불어난 일본인 자제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을 뿐이었다. 그 결과 대만인 자제의 島内 상급학교 진학자가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일본에 가서 진학하는 것이 도리어 쉬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까닭으로 대만인 자제의 중등 이상 학교 입학경쟁은 매우 극심해서 소위 '시험지옥'이라 불리었다.⁵²⁾ 이런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대북제국대학 입학생의 절대 다수가 일본인이었다는 점⁵³⁾과 「대만교육령」 공포 이후

- 49) 이후 대만 각지에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 등이 증설되었으며 7년제 고등학교 1개소가 신설되고 원래의 각 실업전문학교는 3년제의 고등농림·상업·공업학교 및 4년제의 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어 중학교 졸업생을 수용하였다. 黃秀政外, 앞의 책, 210쪽.
- 50)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좋고, 「제국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전환기의 타이완대학」, 대학사연구회 지음,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한길사, 2000), 188-199쪽을 참조.
- 51) 黃昭堂, 앞의 책, 152-153쪽.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하고 재산이 있는 대만인 자제만이 '허가'를 받고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으니, 통계에 의하면 1920년 소학교 재학생 18,983명 중 대만인은 54명(0.28%), 1921년에는 21,372명 중 214명(1.00%), 1922년에는 22,394명 중 564명(2.51%)에 불과했다. 山川均, 앞의 글, 74쪽.
- 52) 黃秀政外, 앞의 책, 210쪽.
- 53) 대북제국대학 입학생 중 대만인은 1928년 69명 중 6명, 1929년 69명 중 7명, 1930년 71명 중 10명, 1931년 70명 중 8명, 1932년 52명 중 5명에 불과했고 1933년 61명 중 15명, 1934년 43명 중 14명, 1935년 30명 중 5명, 1936년 73명 중 26명, 1937년 86명 중 29명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지만 그 중 1936년과 1937년은 의대 입학생이 16명과 21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吳密察, 『從日本殖民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대만인 자체가 더욱 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⁴⁾

차별은 교육내용과 교사자질, 교육경비 및 입시제도 등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1922년 소학교 학생 수는 한 학교당 평균 168명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30명인데 반해, 공학교는 학교당 339명, 교사 1인당 40명이었다. 또 소학교 교사 중 유자격자가 전체의 70.9%인데 반해 공학교는 42.5%에 불과했고, 교육비 지출도 1920년 소학교 학생 1인당 평균 67엔인데 반해 공학교는 36엔에 지나지 않았다. 소학교와 공학교의 차이는 제도상으로 단지 일어상용 여부뿐이지만 실제에 있어 공학교에서는 소학교 5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다. 게다가 중등학교의 입시문제를 소학교 과정을 근거로 출제함으로써 대만인 자체의 합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소학교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97%인데 반해 공학교 학생은 33.65%에 지나지 않았다.⁵⁵⁾ 그 결과 진학경쟁에서 도태된 대다수 대만학생은 더 이상의 고급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무능력한 피지배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게 되는 반면, 일본학생은 자신을 ‘공평한’ 경쟁에서 승리한 능력 있는, 따라서 당연히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⁵⁶⁾ 이와 비슷한 차별의 아픔은 소학교를 다니며 이미 완전히 ‘동화’되었던 소수의 대만학생⁵⁷⁾도 겪어야 했다. 예컨대 당시

教育學制看臺北帝國大學的設立」, 吳密察, 앞의 책, 171쪽.

54) 대만의 일본유학생(초중교, 직업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을 모두 포함)은 1910년 132명에서 1915년 325명, 1920년 649명, 1925년 828명, 1930년 1317명, 1935년 2185명, 1942년 709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략 1918년 이전에는 초등과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이 대다수였고 전문학교 이상은 평균 1/8에 불과했으나, 그 해부터 점차 늘어나 1926년에는 1/3을 차지했고, 1927년 이후에는 줄곧 2/5 이상을 점하다 1934년에는 절반 이상에 달하게 된다. 黃秀政外, 앞의 책, 220쪽.

55) 山川均, 앞의 글, 73-76쪽.

56) 邱敏捷, 「論日治時期臺灣語言政策」, 『臺灣風物』48卷3期(1998.9), 44-47쪽.

최고 명문이던 臺北第一中學 입학을 꿈꾸던 소학교 졸업생이 대만학생은 臺北第二中學에 진학해야 한다는 부친의 말에 충격을 받고 생전 처음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⁵⁸⁾ 이처럼 '동화'를 표방한 식민지 교육은 처음부터 지배자인 일본인이 피지배자인 대만인보다 '우월'하다는 자기 모순적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일어교육을 핵심으로 한 학교교육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불평등한 정치적 역할과 사회관계를 재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일제의 근대화와 동화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청대 대만은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하천 때문에 지역 간 인문, 사회, 행정, 경제상의 격절로 대만 전역을 지역 정체성으로 하는 '대만의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만총독부가 추진한 각종 근대화 조치는 비록 그 목적이 식민지 착취와 식민모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적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만의 '사회소통(Social communication)'을 촉진시켜 지리적 장애를 타파함으로써 대만인의 근대국민의식을 응집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철도를 비롯한 근대적 운송체제의 건설은 그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다. 1908년 基隆에서 高雄에 이르는 縱貫철도 전 노선이 개통되고 1918년 縱貫公路가 준공됨으로써 남북 간의 운수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을 뿐 아니라

57) 이들이 확장시절 일본 학생과의 마찰보다 '동화'되지 않은 대만 아이들과 싸운 기억이 더 많았다는 회고를 통해 학교교육을 통한 '동화'의 위력을 엿볼 수 있다. 邱敏捷, 앞의 글, 44-47쪽.

58) E. Patricia Tsurumi, 林正芳譯, 『日本教育和臺灣人的生活』, 『臺灣風物』48卷1期(1997.3), 70쪽.

阿里山 森林철도와 屏東線(屏東에서 枋寮), 宜蘭線(蘇澳에서 八堵), 臺東線(花蓮에서 臺東)철도, 臨海公路(소오에서 화련)가 차례로 개통됨으로써 동서 간의 교통도 열리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정책과 산지 자원 개발을 위해 각 ‘番地’로 통하는 도로, 그 중에서도 동서 橫斷도로(대중에서 화련)가 뚫리고 그 외 제당회사의 철도⁵⁹⁾와 지방도로 등이 잇달아 완공됨으로써 전 대만의 육로교통망이 완성되었다. 또한 基隆港과 高雄港이 1906년(제2기)과 1908년에 각각 착공되어 1925년에 모두 완공됨으로써 대만의 대외교통 특히 일본과의 무역발전을 촉진시켰다. 그 외 1921년에는 대만과 일본 간의 항공노선이 다음해 9월에는 대북과 고웅 및 대북과 화련 간의 항공노선이 열림으로써 대만의 육해공 교통망이 완성되었다.⁶⁰⁾ 이에 화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등 사회이동성을 크게 제고시켜 대만 각 지역 족군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되었다.⁶¹⁾ 이상과 같은 교통 건설 외에도 대만총독부는 1901년 새로운 도량형제도를 실시하고 1906년 대만은행권을 발행하여 화폐 개혁을 완성함으로써 대만과 일본 사이의 화물과 자본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대만 기업경영의 자본주의화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⁶²⁾

한편 청대 족군 간의 계투는 지리환경의 격절이 한 원인이었으나 언어 차이⁶³⁾로 인한 소통 곤란도 상호 충돌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

59) 1923년 현재 제당회사 소유 철도의 총연장은 1227.8마일(전용철도 952.6마일, 영업철도 275.2마일)로 대만 전체 철도 1804.6마일의 68%를 차지하였다. 山川均, 앞의 글, 49쪽.

60) 王詩琅外編, 『臺灣史』(臺中, 臺灣省文獻委員會, 1977), 615-617쪽.

61) 簡炯仁, 『臺灣開發與族群』, 107-108, 140쪽.

62) 黃秀政外, 앞의 책, 192-193쪽.

63) 대만 원주민 고산족은 크게 9개 종족으로 나누는데 서로 간에 공통의 언어가 없으며, 한족계 대만인의 언어도 福佬話와 客家話로 나뉘는데, 복료화는 泉州 억양과 漳州 억양이 다르고, 객가어는 桃園과 潮州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 하지만 일제시기 대만총독부가 일어보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만의 각 지역은 점차 일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갖게 된다. 점령 초부터 일어보급을 식민지 교육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일본당국은 여러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일어를 가르쳤다. ‘국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일어는⁶⁴⁾ 식민통치체제 확립과 더불어 각종 학교와 사회교육단체 및 일어보급시설을 통해 확대 보급되었고, 그 후 ‘내지연장주의’정책 하에 일어보급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총독부는 공학교의 ‘국어’ 수업시간을 늘리고, 『국어보급 10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등 일어교육을 통한 동화의 강도를 높여나갔다. ‘국어상용’ 제창과 ‘국어보급망’ 구축, ‘국어가정’ 장려와 ‘국어부락’ 건설, 공학교의 한문 수업과 일간신문의 한문란 폐지, 학교와 공공장소에서의 대만어 사용 금지 등이 ‘황민화’운동의 선봉 속에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⁶⁵⁾ 그 결과 대만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⁶⁶⁾과 일어 해독자의 비율⁶⁷⁾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고 한다. 黃昭堂著, 林偉盛譯, 『殖民地與文化摩擦 - 臺灣同化的糾葛』, 『臺灣風物』 41卷3期(1991), 37-38쪽.

- 64) 小澤有作, 『日本植民地教育政策論 - 日本語教育政策を中心にして』, (東京都立大學)『人文學報』82(1971), 4, 9쪽.
- 65) 구체적 내용은 좋고, 『동화와 개화의 상흔 - 식민지 타이완의 일어』, 17-25쪽을 참조.
- 66) 통계에 의하면 1899년 남녀 평균 2%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취학율은 1916년 겨우 10%대에 진입했지만, 1919년 20.7%, 1928년 30.3%, 1935년 41.5%로 점차 높아지다가 1939년 53.2%, 1941년 61.6%, 1943년 71.3%(남자 80.9%, 여자 60.9%)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臺灣行政長官公署統計室編,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提要』(臺北, 1946), 1242쪽; 林茂生著, 林詠梅譯, 『日本統治下臺灣의 學校教育』(臺北, 新自然主義公司, 2000), 275쪽.
- 67) 일어 해독자의 비율도 1905년 대만 총인구의 약 0.38%에서 1915년 1.63%, 1920년 2.55%, 1932년 21.7%, 1935년 29.1%, 1938년 41.9%, 1941년 57.0%로 점차 증가하였고(村上嘉英, 『日本人の臺灣における閩南語研究』, 『日本文化』45(1966), 85-87쪽), 곧이어 전개된 ‘國語不解者一掃’운동으로 1943년 말에는 80%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한다(『興南新聞』, 1943.10.12.).

비록 이들 수치가 통계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는, 실제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⁶⁸⁾ 일어를 구사하는 대만인의 수가 갈수록 증가한 것은 틀림없었다. 이에 대만 사회에서는 일어 교육을 받은 대만인은 민남인, 객가인, 원주민을 막론하고 상황에 따라 일어와 모어를 교대로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를 병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민남어를 모어로 하면서 공학교 교육을 받은 대만인의 경우 일본인과 대화할 때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볼 때 심지어 교육배경이 같은 대만인과 대화할 때는 늘 일어를 사용하지만 자신의 집과 동네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어를 사용했다. 결국 장기간에 걸친 보급운동에도 불구하고 일어는 다언어 사회인 대만에서 생활 언어로 자리잡지 못하고 외래어와 官方語로 간주되었던 것이다.⁶⁹⁾ 하지만 그 동안 언어 문제로 격절되어 있던 대만의 각 족군이 ‘제3자’의 언어인 일어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케 되었다는 점에서 일어는 공통어로서 기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족군 간의 일체감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만 전역에 걸친 교통망의 완성과 유통 시스템의 수립 및 의사소통 도구의 등장은 족군 간의 융합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각 지역별로 형성되었던 시장을 하나의 전국적인 시장이 되게 연결시킴으로써 ‘대만의식’이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할양 당시 대만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체제였기에, 대만총독부는 대만 전역에 농업연구기구를 설립하여 우수한 신품종 개발, 새로운 유기화학비료 생산, 경작기술 교육 등을 통한 ‘녹색혁명’을 즉시 추진하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 ‘녹색혁명’의 성공

68) 줄고, 『동화와 개화의 상흔 - 식민지 타이완의 일어』, 25-26쪽.

69) 周婉窈, 『臺灣人第一次的‘國語’經驗: 析論日治末期的日語運動及其問題』, 『新史學』 6卷2期(1995.6), 123-124쪽.

과 수리시설의 보급으로 쌀의 증산을 비롯한 차·사탕수수·바나나·파인애플 등 경제작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을 뛰어넘는 협력 네트워크와 관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총독부는 또 각지의 ‘農會’와 조합 등 농업 관련 조직체를 통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품종과 농업기술을 소개하고 비료와 종자의 공동구매 및 토지개량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대만 농민 간의 소통 협력을 촉진하였을 뿐 아니라 ‘농회’와 ‘靑果주식회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농업유통망도 수립하였다. 이에 대만의 농촌경제는 청대의 자급자족적인 ‘시진경제’에서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전환하게 되었고, 대만 각 족군 간의 관계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더욱 밀접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10년대 이후 일본제국의 남진정책에 호응하여 경공업 위주의 공업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라 도시화도 진행되어졌다.⁷⁰⁾ 이처럼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대만은 전국적인 시장경제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공업화와 도시화도 아울러 추진된 결과 대만의 ‘사회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만의식’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IV. 일제 하 ‘대만의식’의 성격

일본 식민통치 초기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였던 지역 정체성으로서의 ‘대만의식’은 이상에서 살펴 본 일본제국의 식민지 착취와 민족차별정책에 대한 불만 및 근대화와 일어보급에 따른 사회이동성 제고와 공통어의 등장을 배경으로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명한 형

70) 簡炯仁, 『臺灣開發與族群』, 141-143쪽; 黃秀政外, 앞의 책, 196-198쪽.

태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1920년 이전 일본의 대만유학생이 결성한 조직이나 숙소에 모두 ‘高砂’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1920년 말 동경의 대만유학생이 ‘東京高砂學生青年會’의 명칭을 ‘東京臺灣學生青年會’로 바꾼 이후 대만인이 만든 항일조직이나 잡지 예컨대 臺灣文化協會, 北京臺灣青年會, 新臺灣聯盟, 『臺灣青年』, 『臺灣民報』, 『臺灣新民報』, 臺灣農民組合, 臺灣改革會, 臺灣民黨, 臺灣民衆黨, 臺灣共產黨, 臺灣工友總聯盟 등이 모두 ‘대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점은 일제시대 대만 거주 일본인의 대만주민에 대한 호칭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일제 초기 주로 사용하던 ‘土人’이란 卑稱은 중기 이후 ‘本島人’⁷¹⁾으로 대체되는 한편 ‘대만인’이란 호칭이 1920,30년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가 말기로 가면 현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민족의 특색 중 하나가 자아인지와 타자의 승인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일제 중기 ‘대만인’이라는 집단이 대만주민 스스로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불리어짐으로써 ‘대만인’이 하나의 공동체 명칭이 되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⁷²⁾

‘대만’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삼는 ‘대만인’ 상상은 일군의 동경유학생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밀어닥친 대정민주사조의 영향 하에 이들 중산계층 출신의 대만 지식청년은 식민모국에서 배운 근대화 지식과 이론을 무기로 차별적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저항을 모색하였다. 유학생들은 ‘啓發會’ ‘新民會’를 잇달아 조직하고 1920년 『대만청년』잡지를 발행하여 ‘민족자결’ ‘완전자치’ 등을 구호로 내세우며 식민지 대만의 정치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대만총

71) 대만 거주 일본인을 지칭하는 ‘內地人’에 상대되는 정식 명칭으로, 그 안에 한인(북건, 광둥, 기타)과 번인(숙번, 생번)이 모두 포함되었다.

72) 陳翠蓮, 앞의 책, 64-65쪽.

독의 권한 축소와 대만인의 권익 증진 방법을 둘러싸고 유학생들 사이에 동화주의 노선과 자치주의 노선의 대립이 있었지만, ‘육삼법’철폐를 주장하던 동화주의 노선은 1920년 한국의 친일파 정객 閔元植의 암살을 계기로 퇴조하였고 자치주의 노선도 대만의 현실을 고려하여 ‘완전자치’ 요구 대신 식민지 민선의회설치로 전환하게 된다.⁷³⁾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 1921년부터 1934년까지 14년간 모두 15차례에 걸친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이 전개되어졌다.⁷⁴⁾

자신을 ‘대만인’이라 명명하여 타자와 구분하는 대만인 공동체의 식 즉 ‘대만의식’은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과 蔣渭水를 중심으로 1921년 성립된 대만문화협회의 강연·선전활동 등을 통해 더욱 명확히 응집되어 식민자들이 부여한 ‘본도인’이란 명칭도 거부하고⁷⁵⁾ 더 나아가 대만인으로써의 자부심도 드러내게 된다.⁷⁶⁾ 하지만 일본의 식민통치체제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만인의 평등한 권리 추구만을 목표로 삼은 자치주의운동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되어 마침내 1927년 그 동안 문화계몽운동 및 항일민족운동의 중심 기관이었던 문화협회가 분열된다. 그 후 連溫卿 등 좌파가 완전 장악한 문화협회(통상 신문화협회라 부름)는 강연회 개최를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 노동자 농민을 결합시킨 농공운동에 매진하게 된다. 1929년 문화협회는 대만농민조합(1926년 결성)과 공동 투쟁을 펴기로 하였으나 농민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이 내려지고 문화협회 간부들 역시 검속에 걸린

73) 葉榮鐘等, 『臺灣民族運動史』(臺北, 自立晚報社, 1983), 71-74, 107-108쪽.

74) 이에 관해서는 周婉窈, 『日據時代的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臺北, 自立晚報系文化出版部, 1898)을 참조.

75) 劍如, 『臺灣人的名稱』, 『臺灣民報』 2卷24號(1924.11.21).

76) 『臺灣議會期成同盟會治安警察法違反嫌疑事件第一審公判特別號』, 『臺灣民報』 2卷16號(1924.9.1).

데다 얼마 후 대만공산당 당원이 문화협회에 잠입하면서 그 성격이 또 한 차례 변질되어 1931년 대만공산당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하였고 그 해 6월 대만공산당에 대한 전면적인 검거령이 내려진 후 자연 와해되었다.⁷⁷⁾ 한편 문화협회를 탈퇴한 옛 간부들이 1927년 7월 별도로 조직한 臺灣民衆黨도 장위수 등의 扶助農工 노선에 반발한 林獻堂·蔡培火 등 지주자산계급 출신의 온건파들이 1930년 지방자치추진을 단일목표로 하는 臺灣地方自治聯盟을 조직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 후 민중당은 노동자·농민계급운동을 목표로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1931년 식민당국에 의해 모든 활동을 금지당하고 주요 간부들이 체포됨으로써 짧은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⁷⁸⁾

일제시대 대만인의 항일저항운동을 국가정체성의 입장(‘통일’과 ‘분리’)과 운동의 수단방법(‘혁명’과 ‘개량’)이라는 두 개의 좌표를 갖고 ‘祖國派’(통일, 혁명)와 ‘待機派’(통일, 개량), ‘대만혁명파’(분리, 혁명) 및 ‘一島改良主義’(분리, 개량)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⁷⁹⁾ ‘조국파’는 대만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하던 廣東臺灣革命青年團, 臺灣革命同盟會, 臺灣民主黨, 衆友會 등 대만 청년단체조직을 가리키는데, 조국(즉 중국)의 힘을 빌려 대만이 일본 통치로부터 벗어나 조국으로 回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룹이다. ‘대기파’는 조국이 아직 대만을 원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총독전제정치 하에서 대만인의 권익과 지위를 쟁취하면서 조국으로 회귀의 기회를 기다리지는 그룹으로 (분열 전)대만문화협회와 대만 민중당이 이에 해당한다. ‘대만혁명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대

77) 자세한 내용은 林柏維, 『臺灣文化協會滄桑』, 臺北, 臺原出版社, 1998을 참조.

78) 자세한 내용은 簡炯仁, 『臺灣民衆黨』, 臺北, 稻鄉出版社, 2001을 참조.

79) 若林正丈, 『臺灣抗日運動中的‘中國座標’與‘臺灣座標’』, 『當代』17(1987), 40-51쪽.

만의 독립건국을 주장하는 그룹으로 대만공산당이 중심이 된다. ‘일도개량주의’는 조국의 존재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단지 대만의 생존환경 개량만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1930-1931년 사이에 발생한 향토문학 논쟁 중의 ‘臺灣話文派’가 그 대표라 할 수 있다.⁸⁰⁾

‘조국파’와 ‘대기파’는 중국으로 회귀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가정체성 상의 입장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조국파’의 활동무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직접 조국으로의 회귀를 표명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대기파’는 대만 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겉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조국이 단기간 내에 대만을 해방시킬 수 없으며 대만인도 바로 신분 전환과 국적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만인의 권리와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항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만인의 단결을 위해 ‘漢民族’ ‘중화민족’과 같은 강렬한 종족적 문화적 부호를 사용하여 대만인과 일본인을 구별하는 정체성의 지표로 삼았던 것이다.⁸¹⁾ 다시 말해 이미 “대만은 우리 대만인의 대만이다”⁸²⁾라는 구호가 나왔고 자치권 쟁취운동과 같은 대만을 하나의 특수한 지역단위로 하는 ‘대만의식’이 형성되었지만, 그 ‘대만의식’은 ‘일본의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대만은 우리 대만인의 대만이다”의 또 다른 의미는

80) 李筱峰, 앞의 글, 281-282쪽.

81) 이와 같이 농후한 血緣種族의 특성을 지닌 대만인 공동체의식은 행정구역 바깥의 원주민 즉 ‘생변’을 대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자의 ‘문명과 야만’ 관점을 수용한 한계를 지니지만, 행정구역 내의 원주민 즉 ‘숙변’을 대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인과 대만인의 평등을 요구하기 전에 대만 내부의 문제 즉 원주민에 대한 한인의 차별대우를 일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陳翠蓮, 앞의 책, 51-52, 70쪽.

82) 蔡培火, 『我島と我等』, 『臺灣青年』 1卷4號, 和文之部(1920.10.15); 蔡培火, 『我島與我等』, 『臺灣青年』 1卷5號, 漢文之部(1920.12.15).

“대만은 일본인의 대만이 아니다”를 표현한 것이었다.⁸³⁾ 따라서 당시의 ‘대만의식’은 ‘중국의식’을 배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농후한 ‘중국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만의식’과 ‘중국의식’이 결합한 의식형태에서 ‘중국의식’은 ‘대만의식’을 경계 짓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⁸⁴⁾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시 항일민족운동에 참여하였던 葉榮鐘이 “우리들의 조국관념과 민족의식은 일본인의 차별과 업신여김, 압박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⁸⁵⁾고 한 회고는 당시 그들의 ‘중국의식’이 일본의 민족차별에 대항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좌익인사들로 구성된 ‘대만혁명파’는 국가정체성 상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였다. 1928년 상해에서 성립된 대만공산당은 그 ‘政治大綱’ 중에서 ‘대만민족’의 관념을 분명하게 내걸었을 뿐 아니라 ‘대만인민 독립만세’ ‘대만공화국 건립’의 구호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일제시대 분명하게 ‘대만독립’을 주장한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대만공산당 인사들이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운영을 주도하였던 대만농민조합과 ‘신문화협회’등도 ‘대만혁명파’에 속하지만 당시 이들의 운동 성격으로 보아 그 무게 중심은 계급운동에 있었지 독립건국에 있지는 않았다. ‘대만독립’의 구호는 좌익인사 외에도 李友邦의 臺灣獨立革命黨과 같은 ‘조국파’에 속하는 일부 인사들도 부르짖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만독립’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후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통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

83) 李筱峰, 앞의 글, 282-283쪽.

84) 陳昭瑛, 『論臺灣的本土化運動: 一個文化史的考察』, 『中外文學』23卷9期(1995.2), 56쪽.

85) 葉榮鐘, 『小屋大車集』(臺中, 中央書局, 1977), 23쪽.

었다.⁸⁶⁾

다른 한편 향토문학 논쟁에서 “노동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대만말로 글을 짓고 시를 쓰며, 대만말로 노래를 부르고 대만말로 대만 것을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만화문파’는 ‘중국의식’보다도 ‘대만의식’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가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중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대만사회와 언어보급으로 중국어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일어로 시나 글을 쓰는 것을 거부하고, 대만의 실질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대륙의 백화문 대신 대만의 대중에게 쉽게 보급할 수 있는 대만어 즉 민남어로 문학작품을 발표했다.⁸⁷⁾ 식민지 1세대 지식인인 이들이 대만 본위의 문학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식’과는 분명 다른 ‘대만의식’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성격의 ‘대만의식’을 바탕으로 한 항일저항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 일본제국주의가 과시증적 경향을 보이고 대만에 대한 ‘동화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모두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된다. 그 후 대만인을 진정한 일본인으로 바꾸려는 ‘황민화’운동이 실시되면서 대만인 중 일어를 생활언어로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일어로 된 글과 작품(소위 ‘황민문학’)을 발표하여 식민통치에 영합하려는 지식인이 등장하였을⁸⁸⁾ 뿐 아니라 戰時 일제의 전쟁동원에 청년세대가 적극 호응⁸⁹⁾하여 침략전쟁의 ‘공범’이 됨으로써 중국인으로

86) 李筱峰, 앞의 글, 284-285쪽.

87) 하세봉, 「대만의 식민지경험과 정체성」, 『비교문화연구』16(2004), 93-94쪽.

88) ‘황민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道』라는 소설을 보면 별레에 물린 주인공이 무의식중에 臺灣 俗語를 내뱉고 나서 평소 ‘국어(일어)’로 사고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작품이 작가의 半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에서 당시 대만 지식인의 사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林瑞明, 『騷動的靈魂 - 決戰時期的臺灣作家與皇民文學』, 『臺灣史論文精選』下(臺北, 玉山社, 1996), 206-210쪽.

89) 예컨대 1941년 이듬해부터 ‘육군지원병제도’를 실시한다고 선포되자 자원하는

서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그나마 중국 민족의식이 남아있던 식민지 1세대조차도 전쟁말기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마치 버려진 고아 같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런 비애를 ‘고아의식’으로 승화시키게 된다.⁹⁰⁾ 결국 일제의 민족차별적인 식민지배에 반발하여 자각하기 시작한 ‘대만의식’은 하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종전을 맞았고, 이런 애매한 대만인의 입장은 戰後 또 다른 지배자로 군림한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배 하에서 혼란과 갈등의 소지가 되고 더욱 증폭되었다는 점⁹¹⁾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차별을 전제로 시행된 ‘동화’의 실상과 한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

청대 대만은 지리환경의 제약으로 서로 거의 왕래하지 않는 남북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주요 시진을 중심으로 한 ‘시진경제’와 서로 다른 인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더욱이 초기 한인 이민사회는 지연적 결합관계를 중시하여 출신지별 사용 언어 별로 집단거주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는 지방의식이 매우 강렬하였다. 그 후 한인사회가 점차 토착화되면서 1860년

대만청년들이 줄을 이었으며 심지어 ‘血書지원’하는 광기마저 유행하였다. 제1차 육군지원병 모집에는 42만 여명이 신청하여 천여 명이 선발되었고, 그 다음 해 실시된 제2차 모집에는 60만 여명이, 해군지원병에는 31만 여명이 지원하였는데, 당시 대만 전체 남자인구가 약 300만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周婉窈, 『從比較的觀點看臺灣與韓國的皇民化運動(1937- 1945)』, 『新史學』5卷2期(1994.6), 148-150쪽.

90) 吳濁流, 『亞細亞의孤兒』, 臺北, 草根出版社, 1995.

91) 이에 관해서는 졸고 「동화와 개화의 상흔 -식민지 타이완의 일어-, 41-50쪽을 참조

대에 오면 이러한 지방의식 대신 '대만' 전역을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집단의식이 서서히 싹트지만, 이것이 하나의 완전한 '대만의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기다려야 했다.

할양 초 대만주민들은 일본의 점령에 오랫동안 격렬히 저항하였지만 이들 대부분 청조를 국가정체성의 대상으로 삼거나 왕조교체의 성격을 띤 전근대적인 운동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 초기 대만에는 '대만민족'관념은 물론 지역 정체성으로서의 '대만의식'도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향토애와 조국에 대한 원한 및 총독부의 양안 교류억제 정책은 대만인을 점차 중국과 멀어지게 하였다. 대만 점령 직후 일본은 반항세력을 진압하여 치안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자본주의화의 기초를 완성하여 일본자본의 진출 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대만을 열대경제작물과 식량생산지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위주의 식민경제체제를 건립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착취는 대만인의 조세부담과 세수의 사용처 및 산업의 일본자본 편중 특히 제당업의 독점을 비롯하여 산업노동자의 비중과 미성년 노동자 고용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또 토지와 임야조사를 통해 확보한 관유지를 일본 자본가에 불하함으로써 대만농민의 생계터전을 빼앗고 사탕수수 구매가격을 일본계 제당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대만 통치를 위해 위임입법제도를 도입하여 대만총독이 대만인의 권리와 의무를 좌우할 수 있는 전제체제를 성립시켰고, 이는 문관총독 시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방대하고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형적인 경찰정치'를 시행하였고, 이들 대만경찰은 행정일선에서 권위와 폭력을 앞세워 대만인의 복종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며 민족적

차별을 가하였다. 대만인에 대한 민족차별대우는 관리임용과 승진 및 임금 등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와 교육내용, 교사자질, 교육경비 및 입시제도 등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학교교육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불평등한 정치적 역할과 사회관계를 재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대만총독부가 추진한 각종 근대화 조치는 비록 식민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만의 지리적 장애를 타파함으로써 대만인의 근대국민의식을 응집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교통망의 완성은 사회이동성을 제고시켜 대만 각 족군 간의 거리를 좁혔고, 도량형과 화폐 개혁은 화물과 자본의 유통을 촉진시켰으며, 일어 보급정책은 언어불통으로 격절되어 있던 각 족군이 일어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족군 간의 융합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역별 '시진경제'가 전국적인 '시장경제'로 전환되게 하였고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은 대만의 '사회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함으로써 '대만의식'의 형성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대만의식'은 1920년대에 들어 분명한 형태를 드러내게 되니 '대만'이란 용어 사용과 '대만인'이란 호칭의 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경유학생에 의해 시작된 '대만인' 상상은 반식민지 저항운동을 통해 더욱 명확히 응집되지만 그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고 만다. 일제시대 대만인의 항일운동은 국가정체성의 입장과 그 수단방법에 따라 '조국파'와 '대기파', '대만혁명파' 및 '일도개량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조국파'와 '대기파'는 정체성 상의 입장이 매우 유사하지만, '조국파'는 활동무대가 중국이었던 반면 '대기파'는 대만 내에서 활동하였기에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기파'는 대만인의 단결을 위해 '한민족' '중화민족'과 같은

강렬한 종족적 문화적 부호를 사용하여 대만인과 일본인을 구별하는 지표로 삼았다. 따라서 대만을 하나의 특수한 지역단위로 하는 ‘대만의식’을 표방하였지만 그 ‘대만의식’은 ‘일본의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농후한 ‘중국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대만혁명파’가 비록 ‘대만민족’과 ‘대만독립’을 표방하였지만 그 무게 중심은 계급운동에 있었고, ‘조국파’의 ‘대만독립’도 일본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였다. 반면 ‘일도개량주의’를 대표하는 ‘대만화문파’의 ‘대만의식’은 대만 분위기를 강조한 점에서 분명 ‘중국의식’과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특히 ‘황민화’운동이 전개되면서 많은 대만 젊은이들이 ‘동화’되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그나마 민족의식이 남아있던 식민지 1세대조차도 중일전쟁의 비극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고아의식’으로 승화시키게 된다. 이런 대만인의 애매한 입장은 전후 국민당에 의해 더욱 증폭되어 오늘날까지 대만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배의 여독과 차별을 전제로 한 ‘동화’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게 한다.

주제어 : 일본제국주의, 대만의식, 식민지 착취, 민족차별정책, 근대화, 동화정책

(논문투고: 2010.5.12/ 논문심사완료: 2010.6.8/ 논문게재 확정일: 2010.6.11)

참고문헌

- 『臺灣青年』 『臺灣民報』 『臺灣新民報』 『興南新聞』
臺灣行政長官公署統計室編,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提要』, 臺北, 1946.
簡炯仁, 『臺灣開發與族群』, 臺北, 前衛出版社, 1995,
簡炯仁, 『臺灣民衆黨』, 臺北, 稻鄉出版社, 2001.
江丙坤, 『臺灣田賦改革事業之研究』, 臺北, 臺灣銀行經濟研究室, 1972.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0.
戴國輝著, 魏廷朝譯, 『臺灣總體相』, 臺北, 遠流出版公司, 1992.
矢內原忠雄著, 周憲文譯, 『日本帝國主義下之臺灣』, 臺北, 帕米爾書店,
1987.
吳密察, 『臺灣近代史研究』, 臺北, 稻鄉出版社, 1994.
王詩琅外編, 『臺灣史』, 臺中, 臺灣省文獻委員會, 1977.
王曉波, 『臺灣意識的歷史考察』, 臺北, 海峽學術出版社, 2001,
林柏維, 『臺灣文化協會滄桑』, 臺北, 臺原出版社, 1998.
周婉窈, 『日據時代的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臺北, 自立晚報系文化
出版部, 1898.
주완요저, 손준식의역,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2003.
陳其南, 『臺灣的傳統中國社會』, 臺北, 允晨文化實業公司, 1987.
陳翠蓮, 『臺灣人的抵抗與認同, 1920-1950』, 臺北, 遠流出版公司, 2008.
黃昭堂著, 黃英哲譯, 『臺灣總督府』, 臺北, 前衛出版社, 1994.
黃秀政外, 『臺灣史』, 臺北, 五南圖書出版, 2002.
黃俊傑, 『臺灣意識與臺灣文化』, 臺北,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

- E. Patricia Tsurumi, 林正芳譯, 『日本教育和臺灣人的生活』, 『臺灣風物』48卷1期, 1997.
- 邱敏捷, 『論日治時期臺灣語言政策』, 『臺灣風物』48卷3期, 1998.
- 山川均著, 蕉農譯, 『日本帝國主義鐵蹄下的臺灣』, 王曉波編, 『臺灣的殖民地傷痕』, 臺北, 帕米爾書店, 1985.
- 小澤有作, 『日本植民地教育政策論 -日本語教育政策を中心にして』, (東京都立大學)『人文學報』82, 1971.
- 손준식, 『동화와 개화의 상흔 -식민지 타이완의 일어』, 『식민주의와 언어』, 아름나무, 2007.
- 손준식,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18, 2002.
- 손준식, 『청대 타이완의 개발과 청조의 정책』,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 혜안, 2002.
- 若林正丈, 『臺灣抗日運動中的'中國座標'與'臺灣座標』, 『當代』17(1987),
- 李筱峰, 『一百年來臺灣的政治運動中的國家認同』, 張炎憲外編, 『臺灣近百年史論文集』, 臺北, 吳三連臺灣史料基金, 1996.
- 周婉窈, 『臺灣人第一次的'國語'經驗 -析論日治末期的日語運動及其問題』, 『新史學』6卷2期, 1995.
- 村上嘉英, 『日本人の臺灣における閩南語研究』, 『日本文化』45, 1966.
- 하세붕, 『대만의 식민지경험과 정체성』, 『비교문화연구』16, 2004.

"Taiwanese Consciousness"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Its Formation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Sohn, Jun-shik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peculation on the formation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aiwanese conscious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which becomes the mental background of Taiwanese liberation theory, that is, the biggest issue of the current Taiwanese society.

The Taiwanese society during the Chung Dynsty was not equipped with the condition to develop "Taiwanese consciousness" on the basis of the territorial identity of Taiwan. It was because Taiwan at that time was regionally divided into several districts between north and south, which were rarely contacted with one another, and thereby,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also determined by this regional restrictions, and each administrative districts developed its own discrete community on the basis of "township economy." Furthermore, in the early stage of main Chinese immigration to Taiwan, the immigrants considered regional consolidation as important, and built their community on the basis of their regional language identity. In fact, these immigrants regarded

their regional hometown of China as their place of identification, and thus, their regional consciousness was very strong, causing frequent conflicts between different regional groups. Since then, as the main Chinese immigrants (the people of Han tribes) got domesticated in Taiwan, the regional consciousness got blurred and a new collective consciousness to consider Taiwan as their object of identity emerged by 1860s. However, this took the time of Japanese colonization to get concertized as a complete Taiwanese consciousness.

Japan could occupy Taiwan as a result of the Sino-Japanese War, but it paid the big price to cope with the strong resistance by Taiwanese people. However, most of anti-Japanese resistances by armed Taiwanese people were pre-modern forms of protest based upon Chung dynasty as their national identity or setting up the motto for the change of old dynasty. In this respect, the Taiwanese society in the early stage of Japanese colonization could not form the Taiwanese national identity as well as the Taiwanese consciousness as their local identity. By the animosity against their betrayed country and the love for their land as well as the separation policy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aiwanese people were getting segregated from China and accumulated Taiwanese consciousness against the exploitation and racial discrimination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fter their occupation of Taiwan, Japan stabilized the public security by subduing the protest groups, and built up the infrastructure of capitalist system by renovating the real estate

controlling system and constructing the transportation system. They also set up the colonial economic system to make Taiwan as a place for providing food and tropical products. Japanese colonial exploitation could be found in the tax burden of Taiwanese people and the heavy influx of Japanese industrial capital as well as the percentage of industrial laborers and teenage laborers. It could be also found in the confiscation of pageantry lands by allowing the Japanese capital group to use those lands as well as the policy of allowing Japanese sugar company to control the price of sugar cane products.

On the one hand, Japan set up the despotic system to control rights and duties of Taiwanese people by adopting acting-legislature system, and this tendency continued in the general governor system. To maintain this system,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functioned as a police state by employing the intimidating and vast power of the police. The police threatened Taiwanese people to obey the government and discriminated them with their power and authority. The racial discrimination to Taiwanese people was done in the recrui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their promotion and salary as well as the education opportunity and content, teacher's quality, education budget and school admission system. Particularly, school education functioned as a means of reconfirming the social relationship and political role between the oppressors and the oppressed.

On the other hand, various policies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Taiwan resulted in the consolidation of Taiwanese modern consciousness and the figuring out of regional problems, even though they were originally for the benefit of Japa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promoted social mobility, and thereby, it narrowed down the distance between ethnic groups. The currency reform and measure reform instigated the distribution of the goods and the capital. Japanese language policy eradicated the serious communication problems that many dialects caused among the local tribes. As a result, the consolidation between local tribes was strengthened and the local township based economy was converted into the national market economy. Als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moted social communication in Taiwan, and thus, propelling the formation of Taiwanese consciousness.

By these background that I mentioned above, the Taiwanese consciousness as a local identity became dominant by 1920s, and it was confirmed by the use of the term "Taiwan" and the "Taiwanese people." The Taiwanese imagination, which started by Taiwanese students in Japan, became stronger by anti-colonial resistance, but it broke up by the strategic conflicts. By the attitude to national identity and the means of movement, The anti-colonial movement of the Taiwanese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Nationality Group", "Watching Group", "Taiwanese Revolution Group," and "Enlightenment Group." "Nationality Group" and "Watching Group" set the return to China as their ultimate goal, and in that sense, these two groups looked similar in their identity

attitude, but "Nationality Group" was protesting in the mainland of China while "Watching Group" was in Taiwan and they could not but admit the Japanese power. "Watching Group" recognized that they could not liberate Taiwan from Japanese power, but they adopted the strategy of distinguishing Taiwanese people from Japanese people by employing "Han Race" and "China-centric Ethnicity" for the consolidation of Taiwanese people. Consequently, they promulgated "Taiwanese consciousness" as an independent local unit, representing the Chinese consciousness in reaction to Japanese consciousness. "Taiwanese Revolution Group", which was led by the leftist intellectuals, tened toward the class movement, even though they promulgated "Taiwanese Nationality" and "Taiwanese Independence". The Taiwanese liberation, which was the motto of "Nationality Group", only implied the liberation from Japan. On the other hand, Taiwanese consciousness of "Taiwan Literary Group" which represented "Enlightenment Group" was different from Chinese consciousness in that they put an emphasis on the dominancy of Taiwanese literature.

Key Words : Japanese colonialism, Taiwanese consciousness, Colonial exploitation, National discrimination policy, Modernization, Assimilation policy